하나TV
하나증권

미국주식 | Analyst/미국주식 강재구

트럼프 쇼타임
AI 슈퍼사이클 & 확장될 리쇼어링

하나증권

Trump Showtime: AI 슈퍼사이클 + 확장될 리쇼어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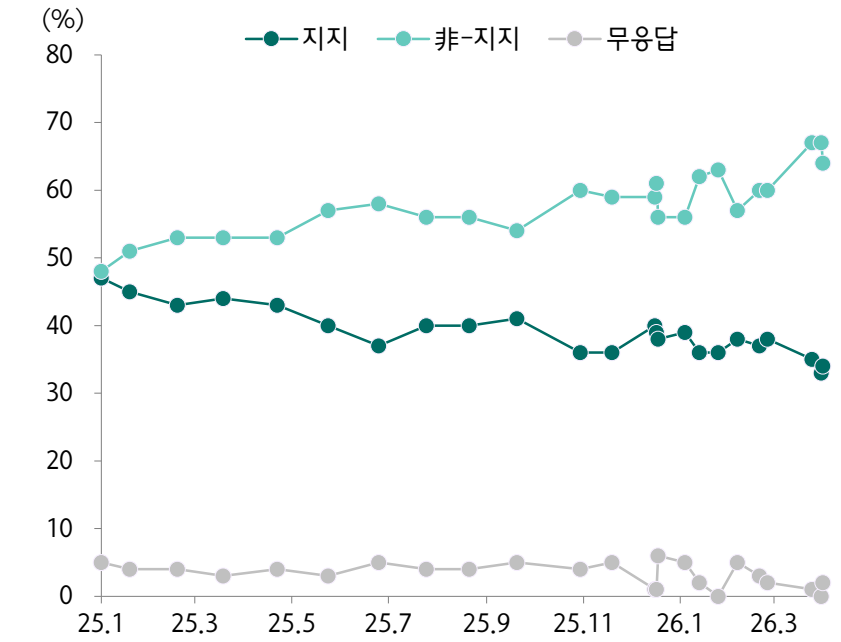
- 미국향 투자 대기자금 10~11조 달러 (정부 유치 9.6조 + 초대형 플랫폼 4사 약 7,000억) → 매출·이익 동시 상향
- Trump Showtime: 트럼프 지지율 34%(역대 최저) + 11월 중간선거 → 10월까지 강한 증시 부양 동기
- 투자아이디어: 변하지 않는 흐름(AI 인프라 투자 + 확장될 리쇼어링) + 차별화(시장 지형 변화, 기업의 진화, 피지컬 AI 등)

자료: 하나증권

낮은 지지율, 의석 차이는 종이 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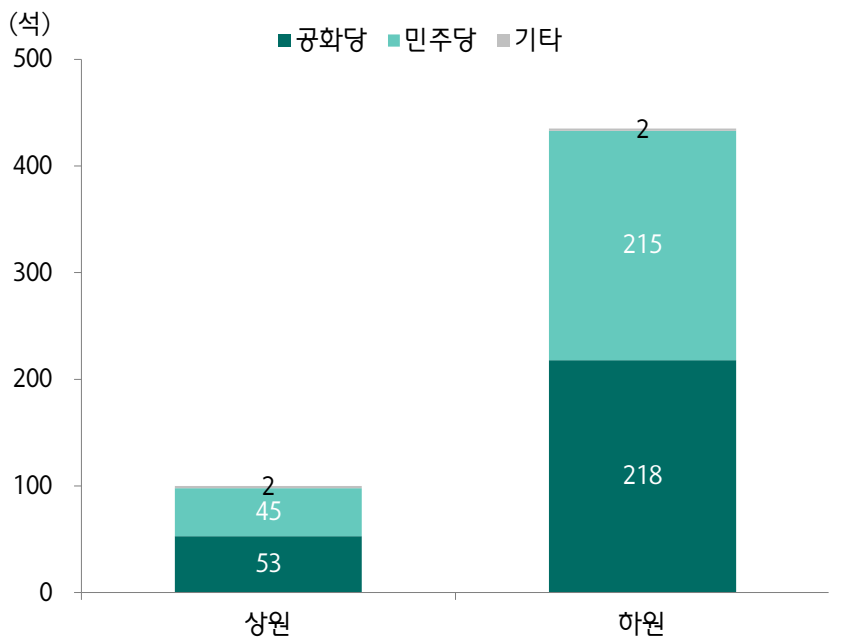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2026년 4월 기준 34%: 2기 출범 이후 최저치. 강한 반대도 약 48% 수준
-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율도 68%까지 하락한 상황: 무당층 지지율은 취임 초 46%에서 25% 수준으로 급락
- 하원 218 vs 212(기타 5), 상원 공화당 53 vs 민주당 45 + 기타 2: 하원 3석, 상원 4석만 뒤집히면 다수당 지위 상실

트럼프 행정부 2기 지지율: 34%로 임기 시작 후 가장 低



자료: American Presidency Project, 하나증권

상원 및 하원의 정당별 의석수: 비등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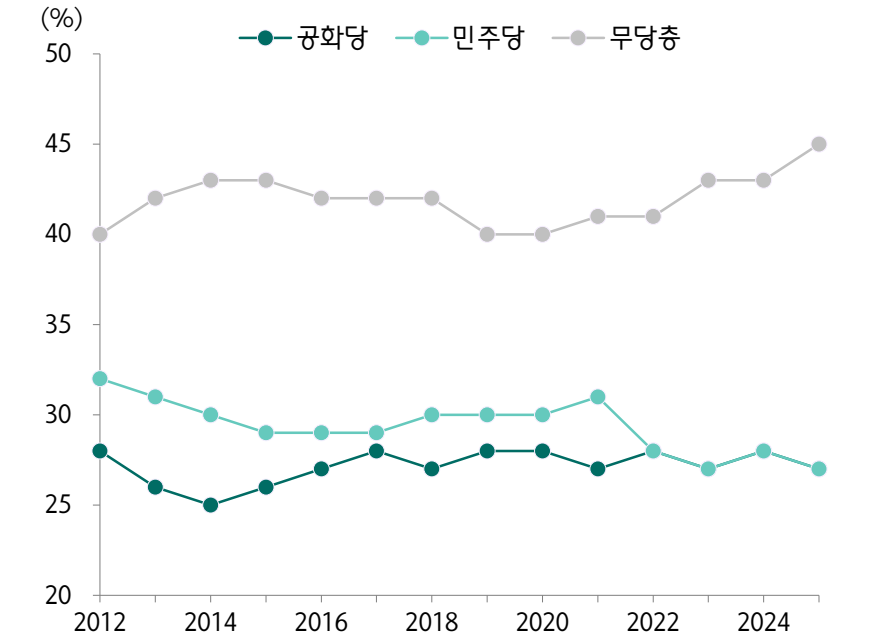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상원 공식 홈페이지, 하원 공식 홈페이지, 하나증권

역대 최고 수준의 무당층(45%)이 판을 가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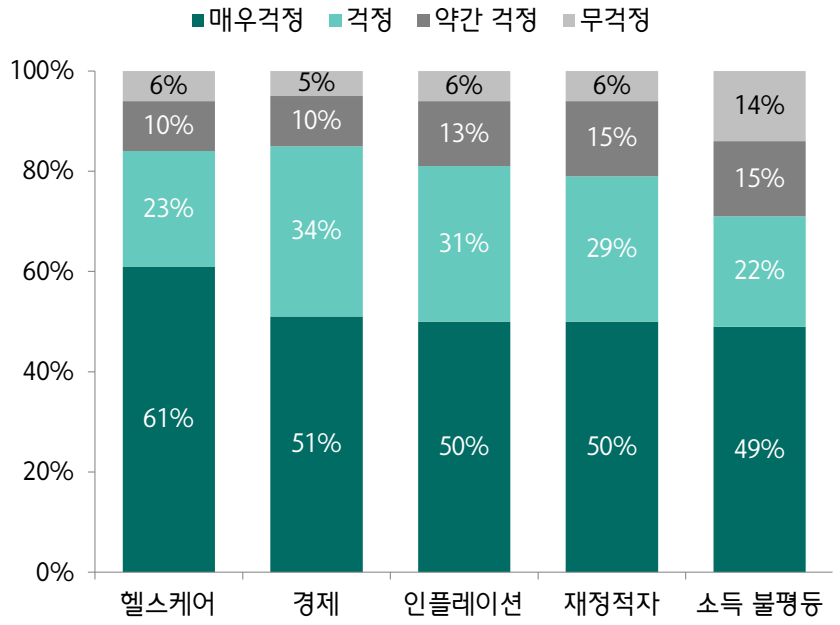
- 미국인의 45%가 무당층: 1988년 Gallup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기록. 공화당과 민주당의 약 27% 수준이 무당층(강력한 정치세력)
- 무당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초 46%에서 25% 수준으로 급락
- 대다수의 미국인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료, 경제, 인플레이션 등 주로 생활과 관련된 이슈 = 트럼프의 숙제

미국 무당층의 영향력



자료: Gallup, 하나증권

미국인들이 걱정하는 주요 이슈: 주로 생활 관련 내용



자료: Gallup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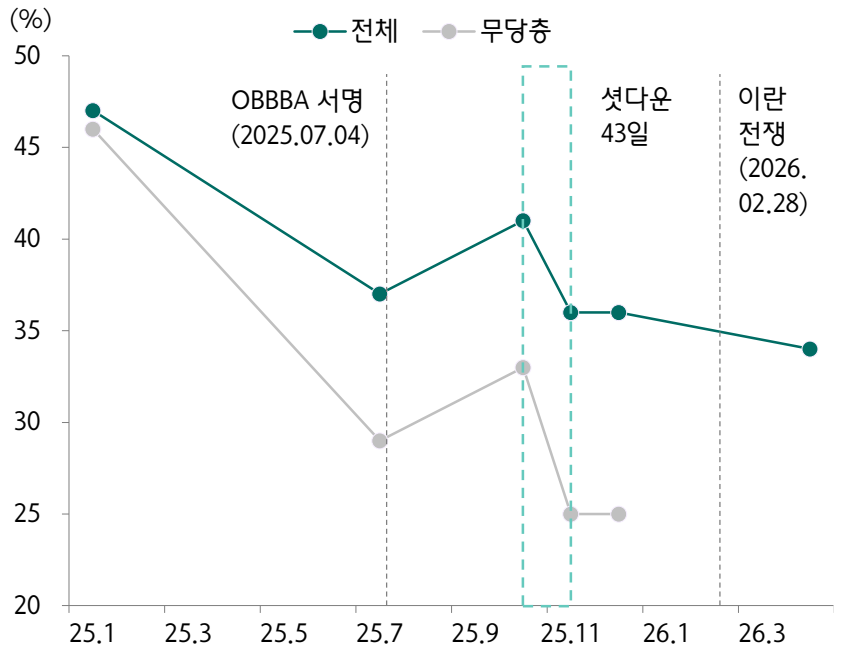
서민을 위한다고 강조했지만 혜택은 고소득 중산층에게

- 2026 국정연설을 통해 팁소득/초과근무 소득공제를 강조했지만 Medicaid, SNAP 삭감으로 재원 충당 → 실제 저소득층의 혜택 제한적
- 팁/초과근무 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: 연방세를 내지 않는 최저소득층에겐 실질 혜택 전무. 복지 삭감만
- 미 의회 예산국, 상위 10%는 2034년까지 소득 2.7% 증가 vs. 하위 10%는 3.1% 감소 전망: 실질 수혜 구조 괴리가 무당층 이탈 가속

OBBBA: 설계 의도와 실제 수혜의 괴리

자료: 미 의회 예산국, Brookings, CRFB, RBC Economics, 하나증권

OBBBA, 셧다운, 이란전쟁이 누적된 지지율 하락



자료: Gallup, 하나증권

모기지, 카드, 학자금 + 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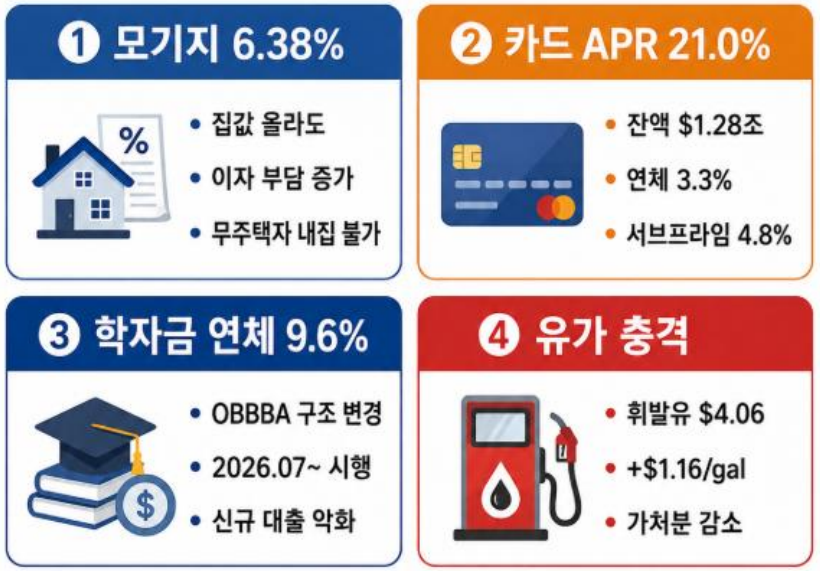
- 미국 가계 총 가계부채 2025년 4분기 $18.8조로 역대 최고치 기록: 모기지·카드 APR·학자금 연체·유가 충격 동시 작용
- 신용카드 잔액 증가 지속, 전체 가계부채의 4.8% 연체: 학자금 대출의 9.6% 90일 이상 연체 →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 압박 심화
- 프라임 차입자와 서브프라임 차입자 간 연체율 2.5%p 격차: 하위 소득층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

미국 가계부채 구조(2025년 4분기 기준)

항목	잔액	비고
총 가계부채	$18.8조	역대 최고
모기지	$12.6조	금리 6.38%
자동차	$1.7조	-
학자금	$1.6조	연체 9.6% (90+일)
신용카드	$1.28조	APR 21.0%
연체(4.8%)	~$0.9조	Q4 2025

자료: 뉴욕 연방은행, 하나증권

미국 가계의 4중 압박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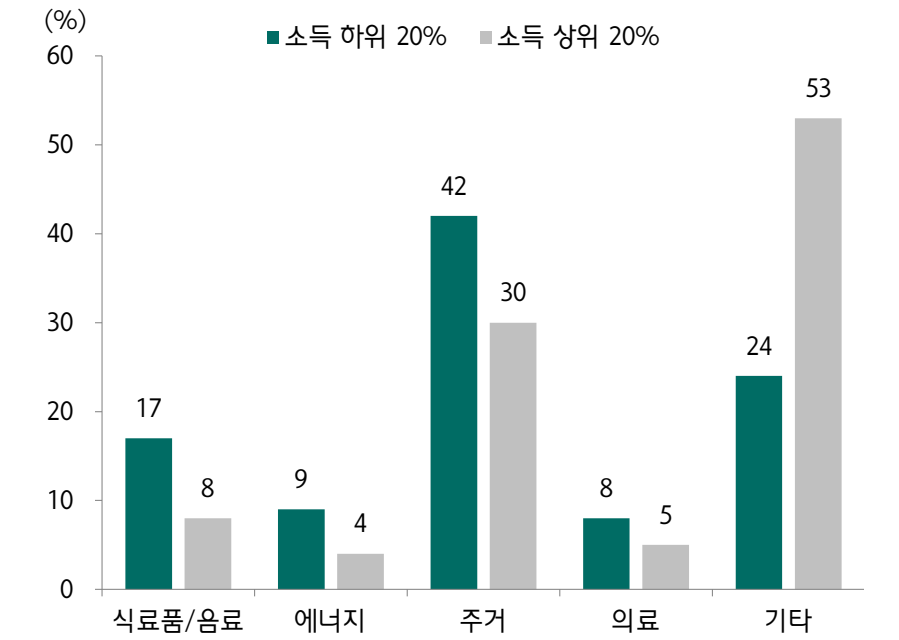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증권

같은 미국, 다른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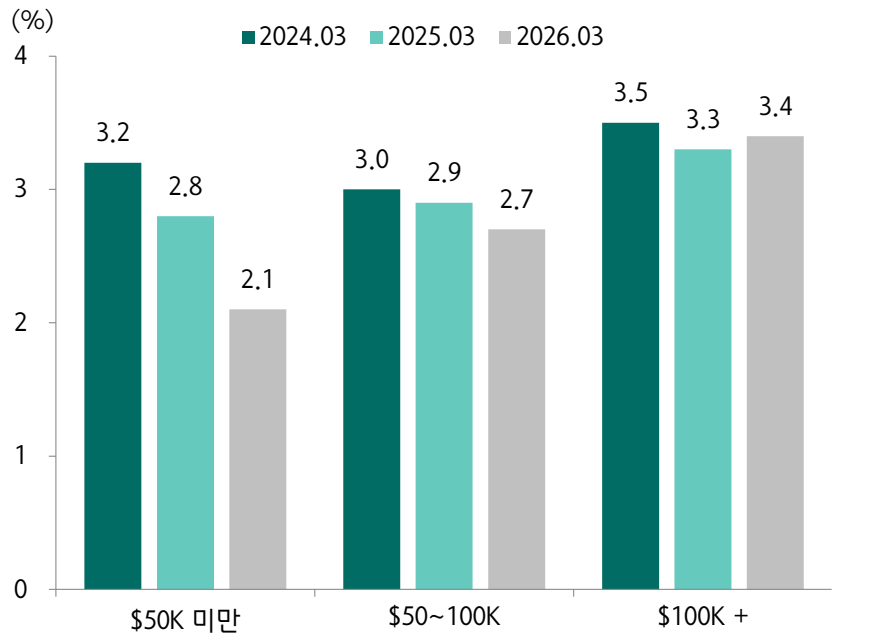
- 양극화: 미국 가계 자산은 $184.1조로 정점이나 상위 10%가 주식의 87%를 독점 중 vs. 하위 50%의 1인당 자산은 $45,000 수준
- 구매력 붕괴: 저소득층 소득 전망(2.1%) 꺾인 반면 물가 부담 커져 실질 구매력 저하 →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역대 최저치 원인
- 정치적 이동: 필수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소외감 → 2024년 대선 트럼프 핵심 신규 표심으로 작동 → 다시 이탈 가능성 有

소득별 물가 체감 비중 차이



자료: 미 노동 통계청, 하나증권

소득별 1년 소득 성장 기대



자료: 뉴욕 연방 은행, 하나증권

6월 UFC Freedom 250부터 중간선거까지

- 하반기 굵직한 5개 이벤트는 저소득, 무당층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: 소비 → 증시부양 → 10월까지 지지율 회복 목표
- 6/11~7/19 (월드컵 개막~결승): America 250이 겹치며 소비 모멘텀+성과 내러티브가 동시에 최고조인 하반기 최대 피크 포인트
-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증시를 역사적 고점에 올려 놓기 위해 6~9월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有

2026년 미국 이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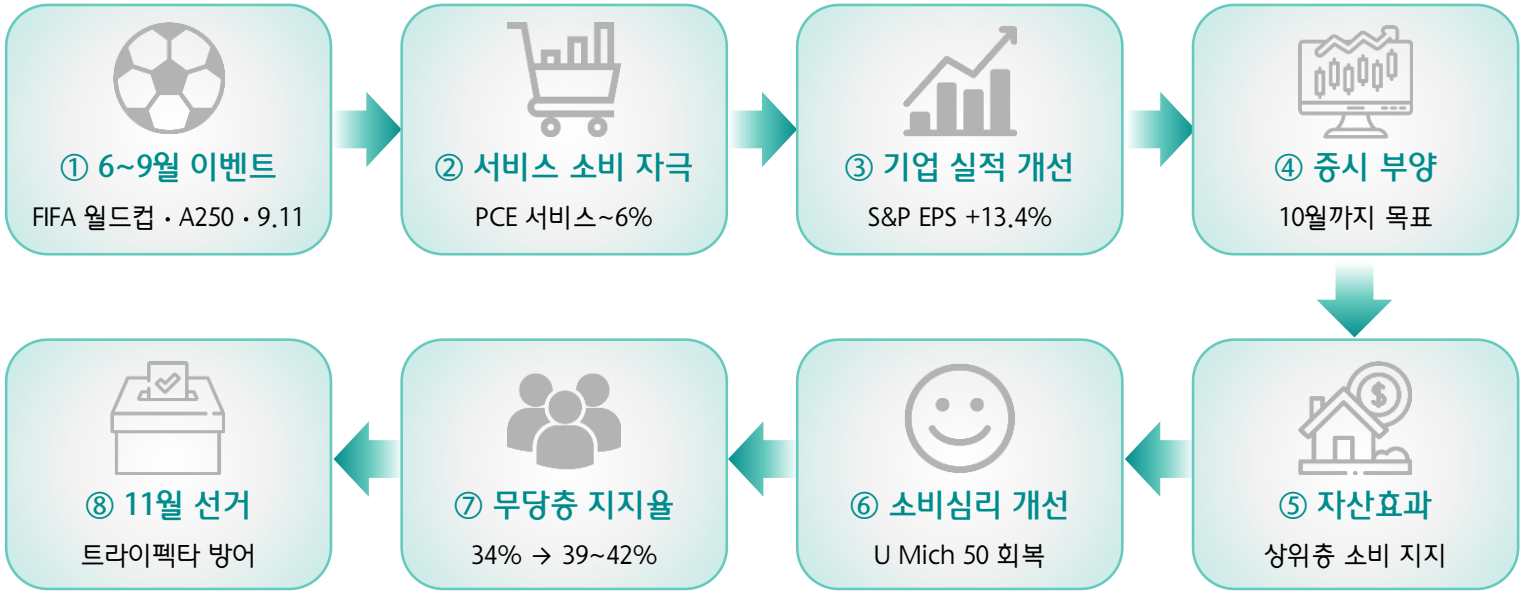
시점	이벤트	내용	관련 산업
6월 14일*	UFC Freedom 250 (Flag Day)	• 스포츠 X 애국주의 강조 • 트럼프 생일에 맞춰 진행 • Freedom 250은 백악관의 미국 독립기념 행사 250주년 명칭	• 미디어, 광고, 스포츠 배팅 등
6월 11일~7월 19일	2026 FIFA 북중미 월드컵	• 북미 최대 소비 이벤트	• 여행, 결제, 미디어 등
7월 4일	America 250 (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)	• 미국 우선주의 강조: 애국심 고양 • 전쟁 공과 강조 • 리쇼어링, AI 성과 강조	• 인공지능, 리쇼어링, 제조업, 방위산업 등
9월 11일	911테러 25주년 추모행사	• 안보: 국토 및 사이버 보안	• 방위산업, 보안 등
11월 3일	중간선거	• 정책 방향성 결정	• 섹터 로테이션

주: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 생일
자료: 백악관, 언론 종합, FIFA, UFC, 하나증권

트럼프의 돌파 경로: 이벤트 → 소비 → 증시부양 → 소비심리 개선 → 선거

- 트럼프는 역대 최저 지지율(34%)로 11월 중간선거를 맞아야 하는 상황. 10월까지 S&P 500을 현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할 것
- 단기에 물가나 금리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벤트를 통한 소비 자극과 증시 부양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
- 6월 스포츠 이벤트, 7월 250주년 독립기념일, 9월 25주년 911 추모까지 이어지는 이벤트 사이클 통해 소비 자극, 기업 실적 개선 예상

이벤트 → 소비 → 증시부양 → 소비심리 개선 → 선거 플로우



자료: 하나증권

4가지 시나리오 + 확률

- 4가지 시나리오(상원 + 하원): ① R + D, ② D + D, ③ R + R, ④ D + R
- 컨센서스로 계산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1번: 상원 공화당, 하원 민주당
- D 스윕은 두 번째로 높은 확률이지만 상원 탈환 조건이 까다롭고, R 스윕 유지는 확률이 낮음

4가지 선거 매트릭스 시나리오

시나리오	확률 * 단순 계산	주요 정책
상원: 공화당 하원: 민주당	79% x 58% = 46%	예산, SNAP, Medicaid 등 주요 정책적 안건에서 갈등 예상
상원: 민주당 하원: 민주당	79% x 42% = 33%	정책 불확실성 야기 최악의 경우 2028년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로 번질 가능성도 고려
상원: 공화당 하원: 공화당	21% x 58% = 12%	현 구조 지속. 정책 탄력 강화
상원: 민주당 하원: 공화당	21% x 42% = 9%	가능성 낮은 조합

주: 폴리마켓: 2026년 하원 민주당 가능성 79% 예상, 칼시: 상원 공화당 가능성 58%로 계산 = 45.8%
자료: 폴리마켓, 칼시, 하나증권

무풍지대(AI, 리쇼어링) vs. 갈등영역(에너지, 헬스케어, 금융규제)

-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선거와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
- AI, 리쇼어링은 양당의 이견이 거의 없는 초당적 방향성: 선거 결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
- 에너지, 헬스케어, 금융규제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 민감 섹터 →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, 보조금, 세제 환경 등이 달라질 여지 有

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 수혜 분야와 갈등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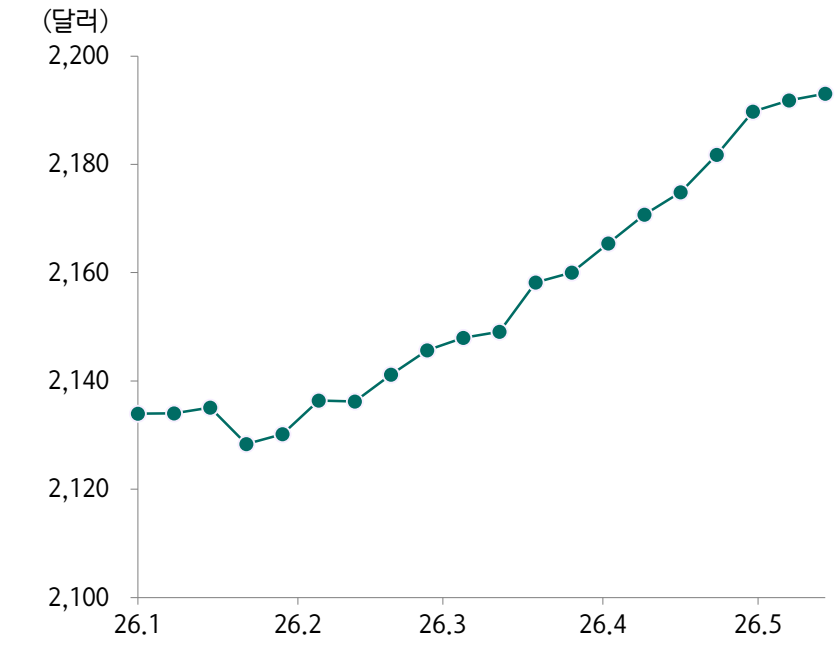
구분	분야	평가
초당적 방향성	AI	• 미국의 AI 주도권, 중국 견제, 데이터센터·전력 인프라 확충은 양당 모두 큰 방향에서 동의 • 공화당은 규제완화·연방 단일규칙, 민주당은 안전·노동·소비자보호 규제를 더 강조
초당적 방향성	리쇼어링 / 산업정책	• 공급망 안보, 반도체, 핵심광물, 조선, 방산 제조기반 강화는 양당 모두 지지 • 민주당은 보조금·노동조건·친환경 제조, 공화당은 관세·세제·규제완화 쪽을 선호
갈등 영역	에너지 정책	• 가장 큰 차이 • 공화당은 화석연료·LNG·시추·규제완화, 민주당은 재생에너지·배터리·전력망·기후정책을 선호 •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양당 모두 전력 증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,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지에서 충돌
갈등 영역	헬스케어	• Medicaid, ACA 보조금, 약가 규제, 병원·보험사 규제에서 차이가 큼 • 민주당은 보장 확대·보조금 유지, 공화당은 지출 축소·근로요건·주정부 재량 확대 쪽
갈등 영역	규제	• 금융, 빅테크, 환경, 노동, 소비자보호 규제에서 차이가 큼 • 공화당은 규제완화, 민주당은 감독·안전·반독점·소비자보호 강화 쪽

자료: 하나증권

하반기에도 미국증시를 즐겨야 하는 이유: 준비된 투자와 개선되는 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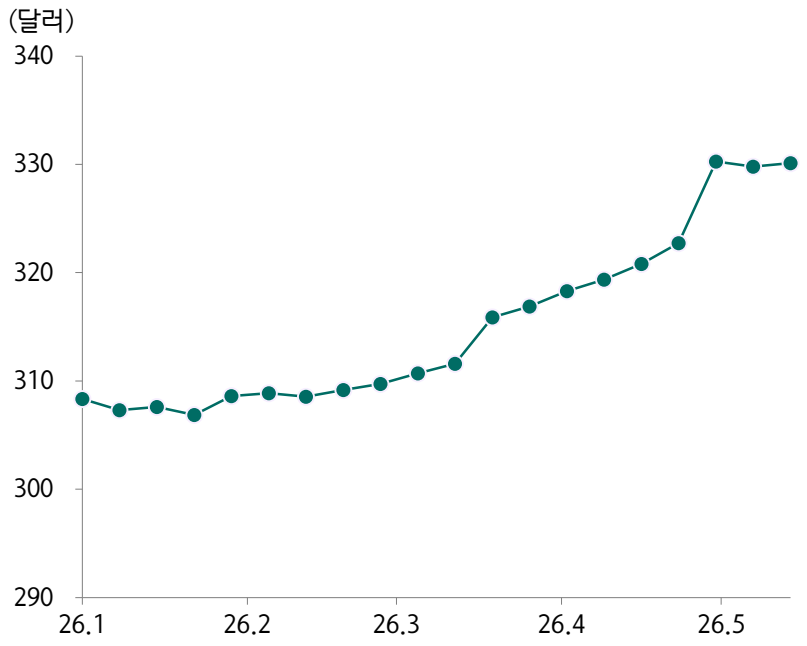
- 하반기에도 미국증시에 기대가 큰 이유는 미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사이클 지속되고, 이익 개선의 시너지 예상하기 때문
- S&P 500의 주당 순매출(SPS)의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 2.8% 상향, 주당 순이익(EPS) 전망치는 7.1% 상향
-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후 매출 전망보다 EPS 컨센서스가 더 빠르게 상향됐다는 점은 비용 증가 제한 및 이익 개선을 시사

S&P 500의 주당 순매출(SPS) 컨센서스 추이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S&P 500의 주당 순이익(EPS) 컨센서스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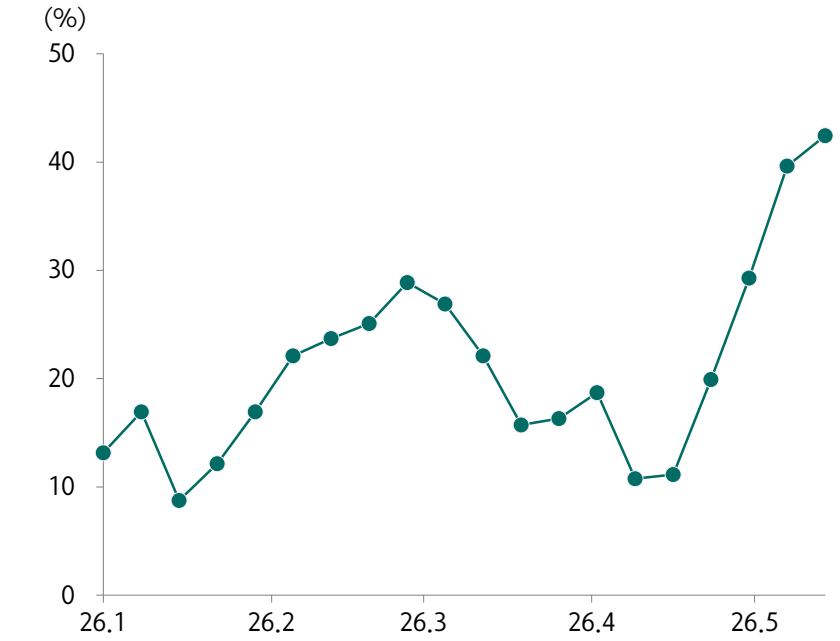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매출과 이익 전망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구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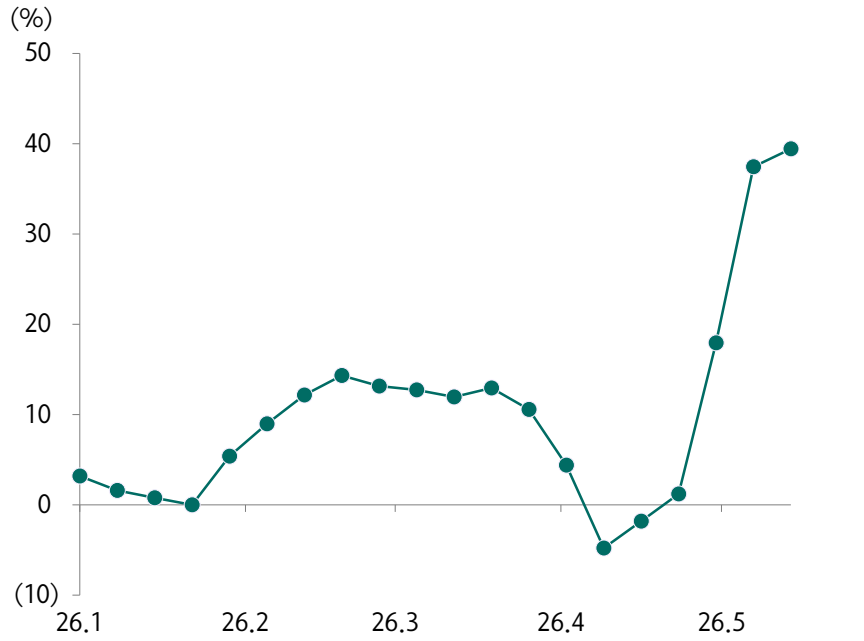
- 투자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기업 매출에 반영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기대
- S&P 500의 주당 순매출 컨센서스 상향률은 2.8%에 그쳤지만, 최근 SPS 상향 비율은 빠르게 확대
- SPS 수정비율 개선은 매출 컨센서스의 추가 상향 여지를 시사하며, EPS 개선과 결합되면 이익 선순환 가능성 高

S&P 500의 주당 순매출(SPS) 컨센서스 추이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S&P 500의 주당 순이익(EPS) 컨센서스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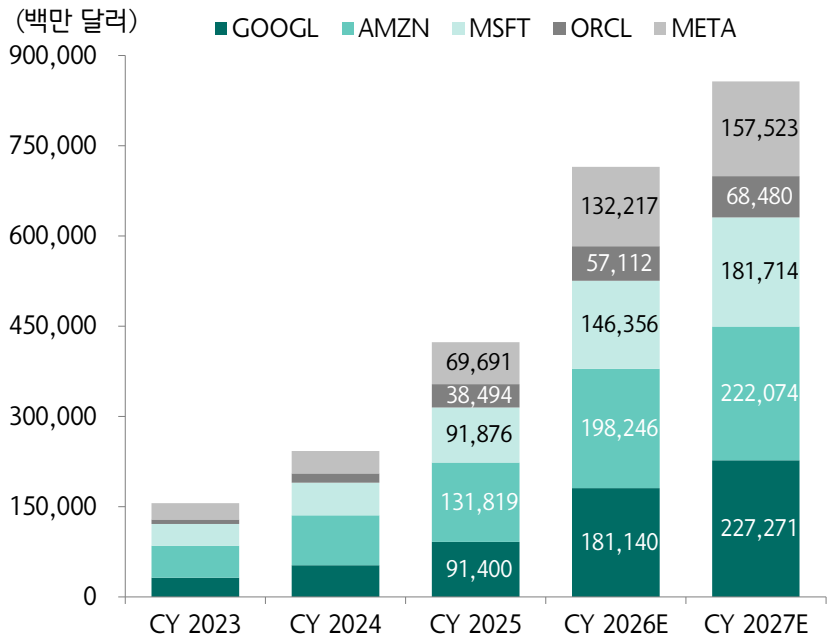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10조 달러 이상의 미국향 투자: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합작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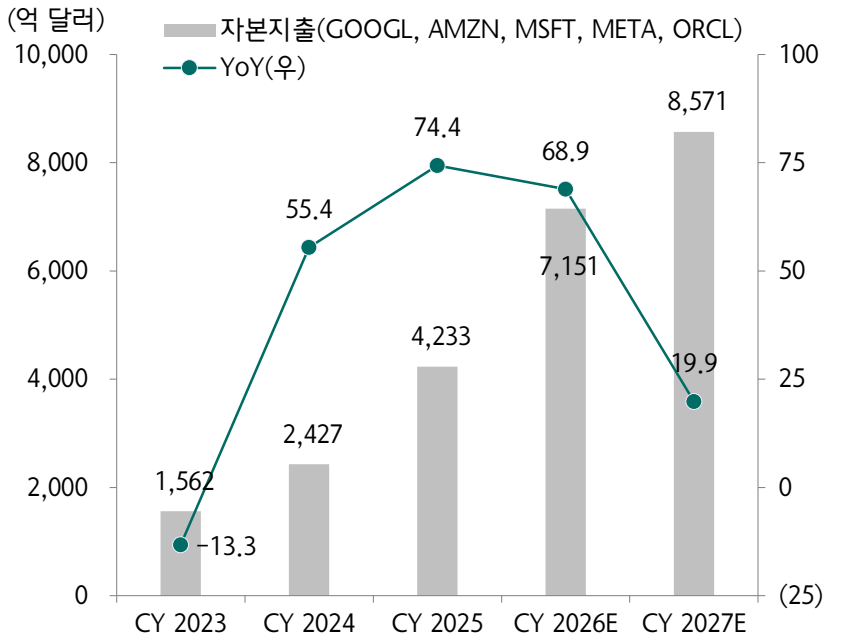
- 미국에 준비된 투자금액은 10~1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: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경제 부양 시너지 예상
- 2025년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전 세계로부터 받아낸 9.6조 달러의 투자: AI 인프라, 리쇼어링, 방산 무기 판매, LNG 수출 등
- 초거대 기술 기업들(알파벳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오라클 등)의 CY 2026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약 7,000억 달러

주요 기술기업별 연간 자본지출 및 컨센서스 추이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주요 기술기업들의 연간 자본지출 및 컨센서스 합계 추이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관세의 진짜 효과는 강제적인 리쇼어링

-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속 숨어있는 진짜 의도는 전 세계로부터 대미(對美) 투자 약속을 받은 것
- 트럼프 2기 첫 해는 리쇼어링 본격화를 위한 준비 기간: 약 9.6조 달러 수준
- 1,0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16개, 이 중 1조 달러 이상은 3개(중동과 일본 등 국가 단위의 투자)

트럼프 정부가 유치한 투자(9.6조 달러) 중 1,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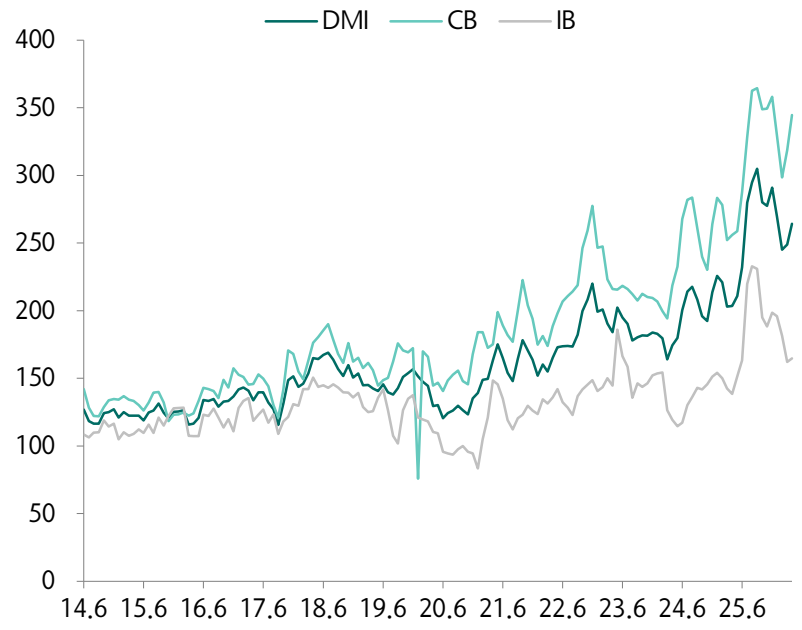
국가 및 기업	투자금($)	섹터	투자 분야
UAE	1.4 T	제조업, 산업재	기술, 우주항공, 에너지
카타르	1.2 T	제조업, 산업재	기술, 제조업
일본	1 T	제조업, 산업재	자동차 공장, US 스틸
메타	600 B	기술 및 AI	AI 인프라 및 고용 확대
애플	600 B	기술 및 AI	제조업 및 교육
사우디 아라비아	600 B	제조업, 산업재	기술 및 제조업
EU 기업들	600 B	다양한 섹터	일반 투자
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	500 B	기술 및 AI	AI 인프라 (프로젝트 스타게이트)
엔비디아	500 B	기술 및 AI	AI 인프라 및
인도	500 B	제조업, 산업재	상호 무역 확대
대한민국	450 B	에너지, 환경	미국 에너지 제품(LNG)
아마존	340 B	기술 및 AI	AI 인프라, 데이터센터, 클라우드 확장
마이크론	200 B	기술 및 AI	반도체 제조, R&D
JERA	200 B	에너지 및 환경	연간 미국 LNG 구매
IBM	150 B	기술 및 AI	성장 및 제조 운영
TSMC	100 B	제조 및 산업	반도체 생산 공장 (피닉스, 애리조나)

자료: Whitehouse, 하나증권

미국의 건설 계획 Update(Dodge Momentum Index, DM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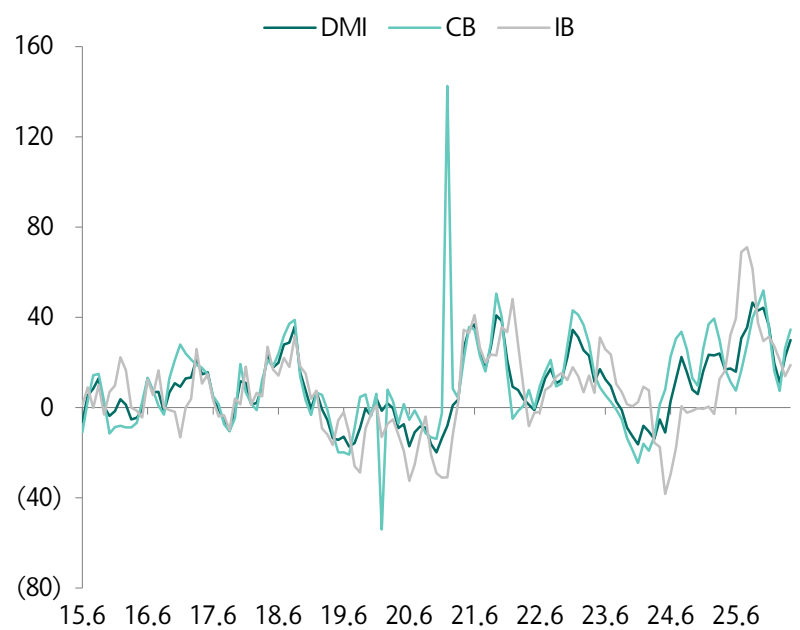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 다시 반등: 역사적 고점 수준 회복 가능성 有
- 상업용 건설 계획(Commercial Building, CB):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사무실, 창고, 호텔 등 건설 계획 증가 vs. 소매점은 둔화
- 3월 한 달 1억 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 계획 44건 발표: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

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



자료: Dodge Construction Networks, 하나증권

미국 건설 계획 지표 YoY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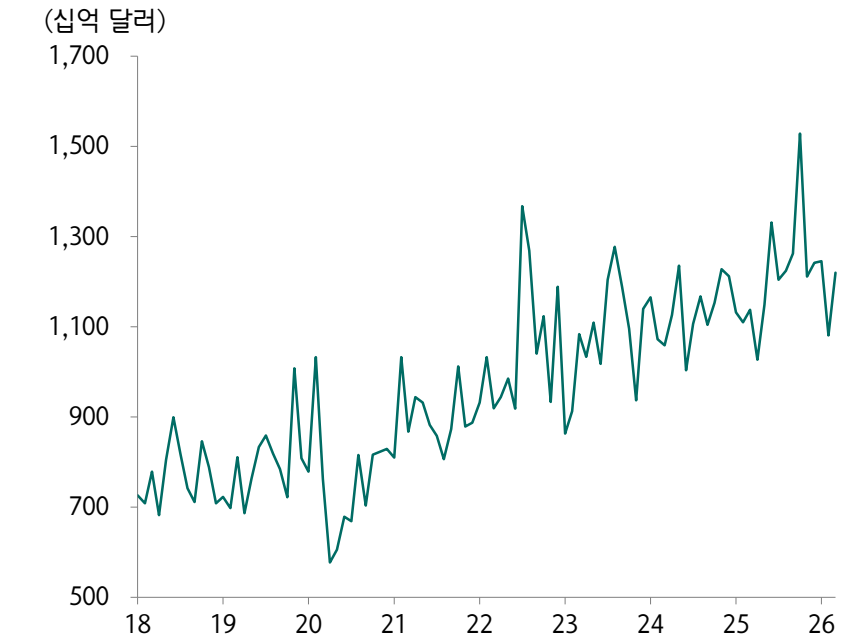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Dodge Construction Networks, 하나증권

미국의 건설 착공 Update(Dodge Construction Starts, DC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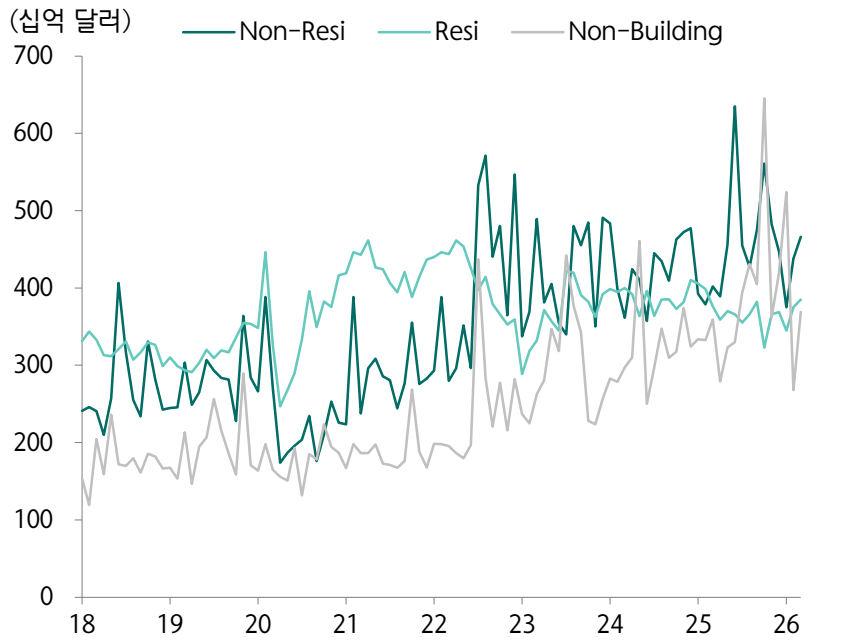
- 건설 계획은 역사적 고점 탈환을 시도하지만, 실제 착공은 아직 고르지 못한 상황
- 3월 건설 착공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은 부진했지만 관련 인프라인 전력, 유틸리티 프로젝트 급증 & 2월 이후 제조업 건설 반등
- 데이터센터 투자는 건물보단 IT 인프라 중심 집중 가능성 高 + 리쇼어링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

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



자료: Dodge Construction Networks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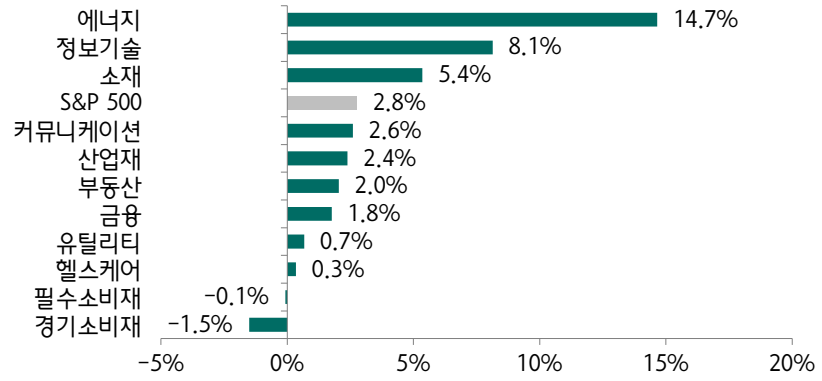
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 YoY 추이



자료: Dodge Construction Networks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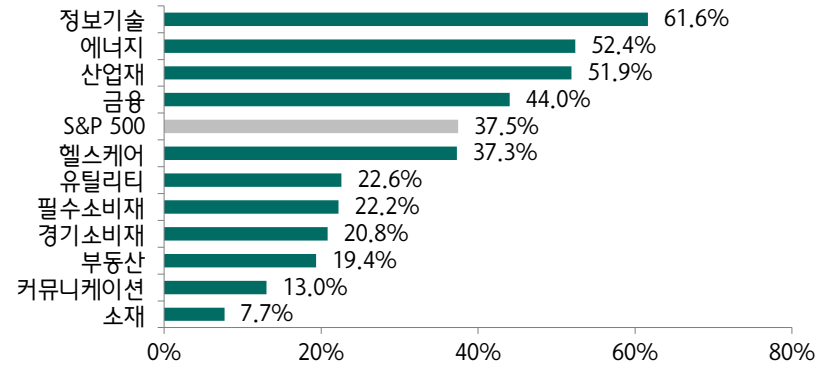
섹터별 EPS 컨센서스 변화

연초 대비 섹터별 EPS 컨센서스 변화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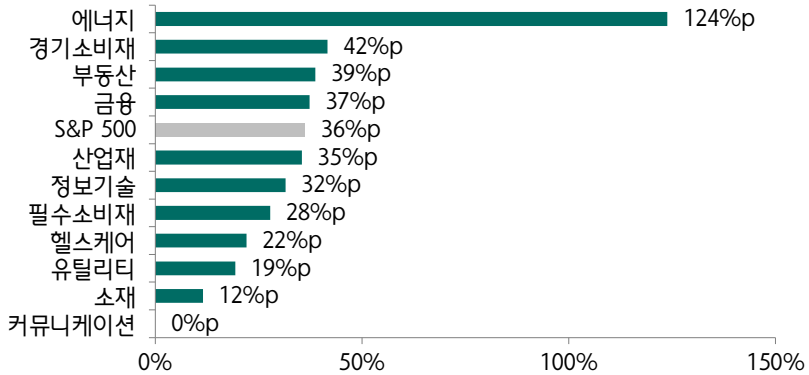
- EPS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향된 섹터는 에너지지만 유가 상승 감안하면 구조적 성장으로 보긴 어려움. 소재도 마찬가지
- 정보기술: 가장 강한 이익 모멘텀
- 산업재, 금융: 이익 모멘텀이 개선될 여지 大

5/12 기준 EPS 컨센서스 상향 비율(이익수정비율)



자료 : Factset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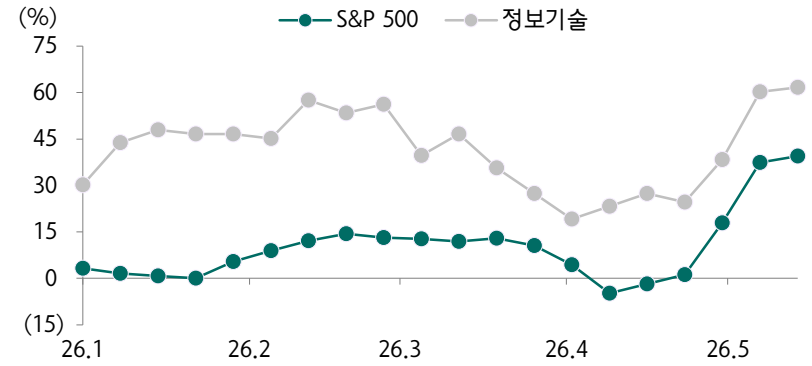
연초 대비 섹터별 EPS 상향 비율 변화



자료 : Factset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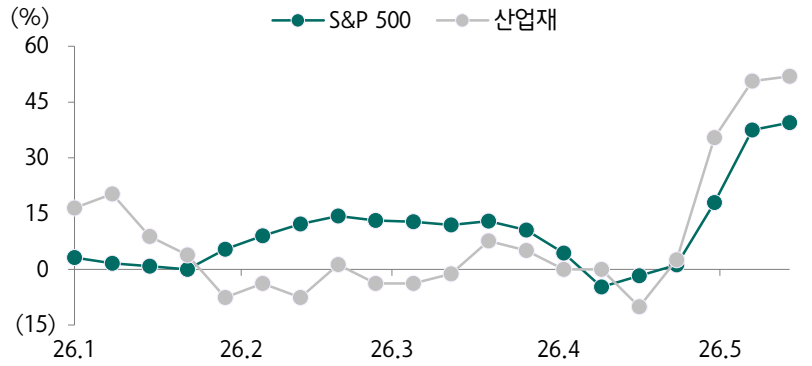
하반기 선호섹터: 정보기술, 산업재, 금융

S&P 500과 정보기술 섹터의 이익수정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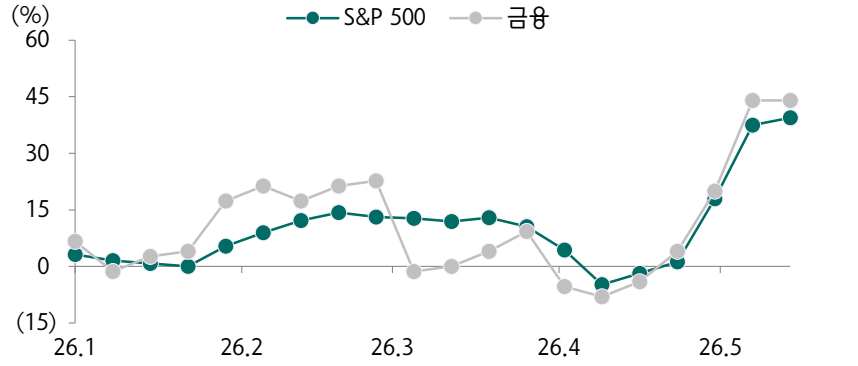
- 정보기술, 산업재, 금융: 이익 모멘텀 개선 기대 섹터
- 정보기술: 이익수정비율 1위. 1월부터 계속 (+)
- 산업재: EPS 전망은 평이하지만 이익수정비율 3위. 모멘텀 가장 빠르게 가속, EPS 컨센 추가 상향 여지 大
- 금융: 산업재와 유사한 이익 모멘텀 개선 기대되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규제 노이즈 주의

S&P 500과 산업재 섹터의 이익수정비율 추이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S&P 500과 금융 섹터의 이익수정비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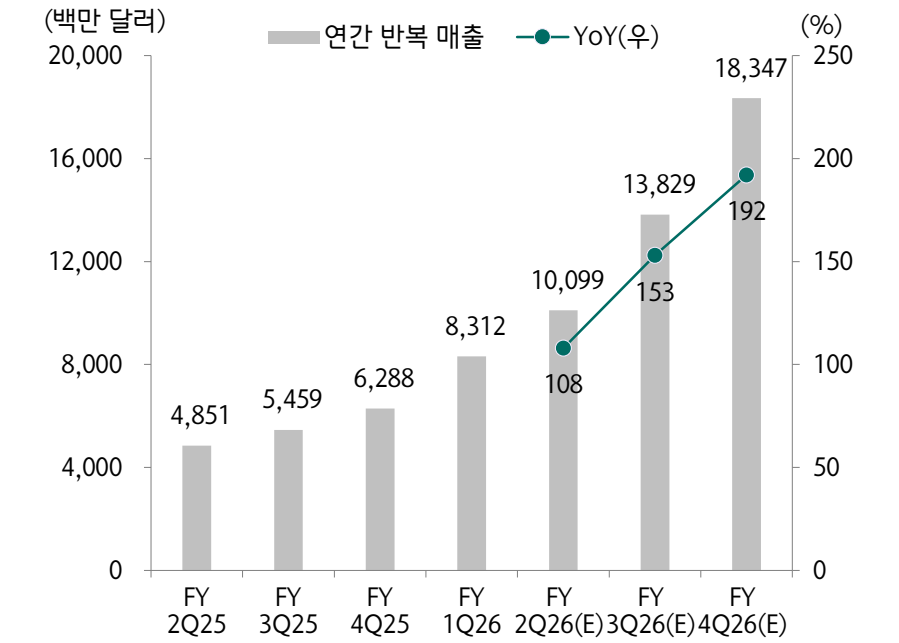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변하지 않는 흐름: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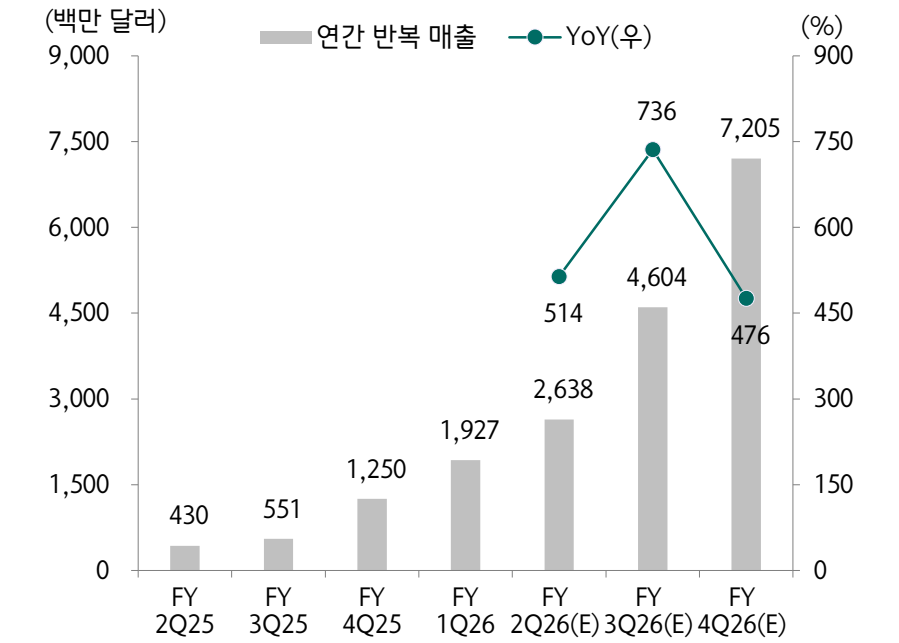
- 네오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, 네비우스, 아이렌 등의 호실적은 강력한 AI 컴퓨팅 수요를 시사
- 코어위브 매출 2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 지속, FY 1Q26 연간 반복 매출은 FY 2Q25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장
- 아이렌은 FY 1Q26 클라우드 매출 YoY 94% + 엔비디아와의 장기 계약

코어위브의 분기 연간 반복 매출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네비우스의 분기 연간 반복 매출 추이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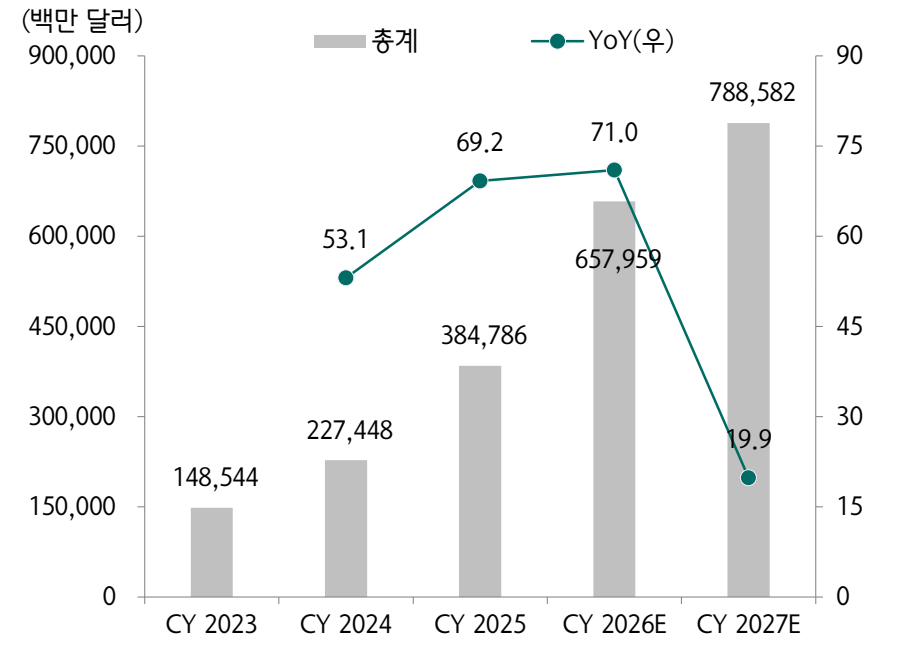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변하지 않는 흐름: 더 많은 지출 예고한 플랫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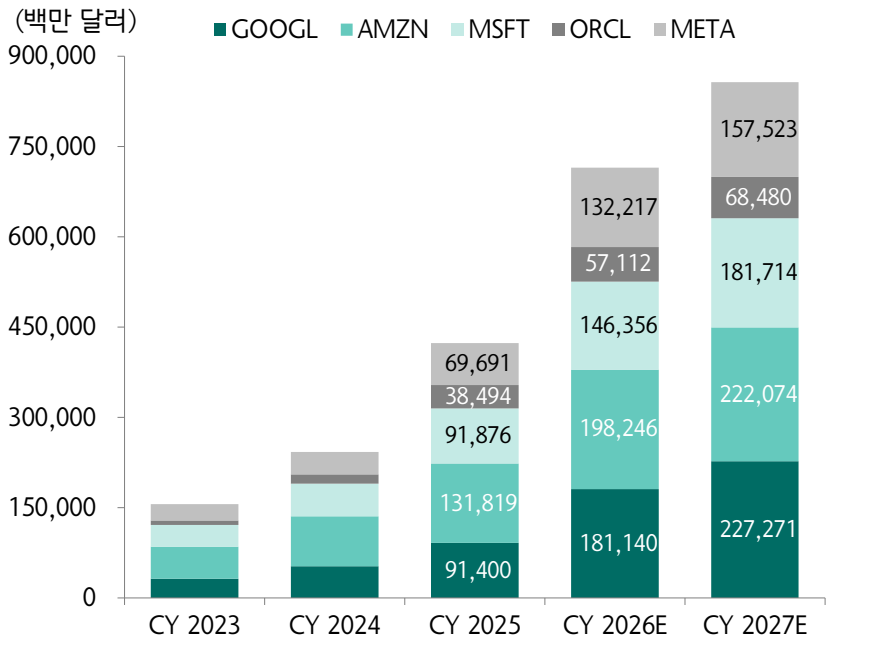
- 초대형 플랫폼들(GOOGL, AMZN, MSFT, META)의 공격적인 투자 예고: 자본지출 회수에 대한 자신감(=강력한 수요 시사)
- 초대형 플랫폼 4개사 CY 2026 예상 자본지출 합은 약 6,600억 달러(오라클 포함 시 약 7,000억 달러): 컨센서스 점진적 상향 중
- 자본 지출에 신중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,900억 달러의 자본지출 전망을 제시: Azure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강조

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총 자본지출 합계 및 전망
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연간 자본지출 추이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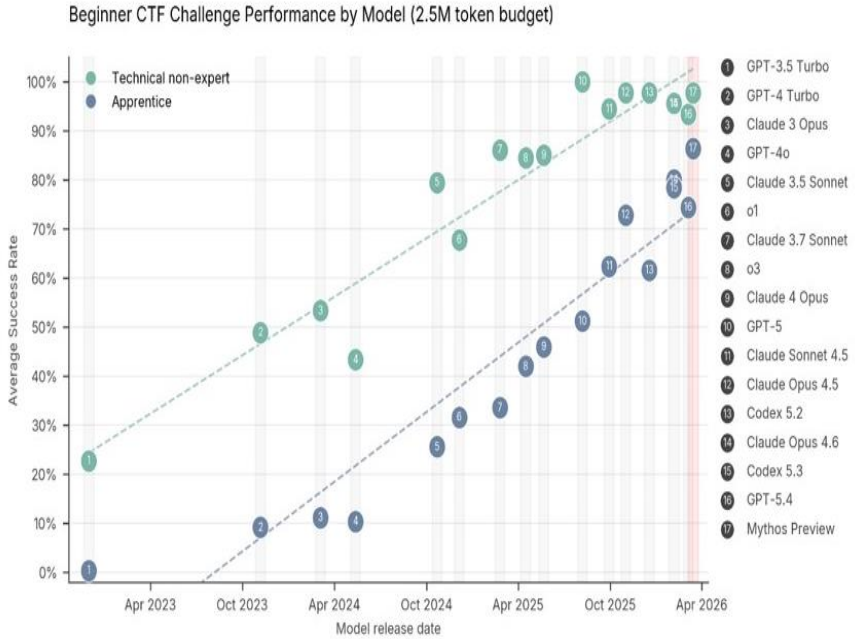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actset, 하나증권

변하지 않는 흐름: 미토스, 국가 단위의 AI 투자 야기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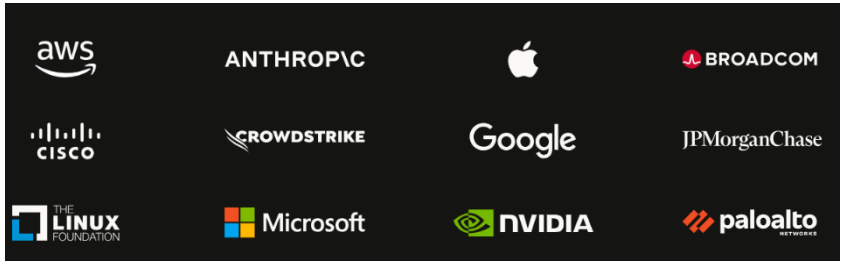
-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각광받은 이유는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역량
- AI가 국가 안보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: 미국의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AI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
- 마이크로소프트도 미토스에 대항해 개발한 AI 공개: 경쟁적인 AI 개발도 유발 가능. 투자의 확장은 필연적

보안 취약점 평가(CTF) 평가 결과: 미토스가 가장 우수



자료: 영국 AI 보안연구소, 하나증권

앤트로픽의 미토스 기반 사이버 보안 동맹 글래스윙 출범



자료: 앤트로픽, 하나증권

변하지 않는 흐름: 병목 스토리 순환 계속

- 단기 병목: 메모리(HBM), 첨단 패키징, GPU/AI 가속기 등
- 중기 병목: 네트워킹, 광모듈, 전력관리칩, AI 서버 통합, 랙 출하
- 장기 병목: 데이터센터 전력, 냉각, 변압기, 전력망 접속, 부지 등

AI 인프라 병목의 시간축 구분

구분	주요 병목	왜 이 시점에 병목인가	병목 강도
단기 병목	HBM, 첨단 패키징/CoWoS, GPU·AI 가속기 완제품, 스토리지	• AI 서버 출하를 당장 제한하는 앞단 부품 • 없으면 GPU 완제품 생산 자체가 지연됨	매우 높음
중기 병목	네트워킹, 광모듈, 스위치 ASIC, 전력관리칩, AI 서버 통합, 랙 출하	• GPU 공급이 늘어난 뒤 이를 클러스터·랙 단위로 묶는 과정에서 병목화	높음
장기 병목	데이터센터 전력, 냉각, 변압기, 전력망 접속, 부지, 발전원	• 서버가 있어도 실제 설치·가동을 위해 필요한 물리 인프라 • 리드타임이 수년 단위	매우 높음
상대적으로 덜 타이트한 부품	서버용 CPU, 일반 파운드리, 일반 서버 부품	• 수요는 강하지만 HBM·CoWoS처럼 AI 서버 출하를 직접 막는 최상위 병목은 아님	중간 이하

자료: 하나증권

핵심 부품별 병목 강도와 판단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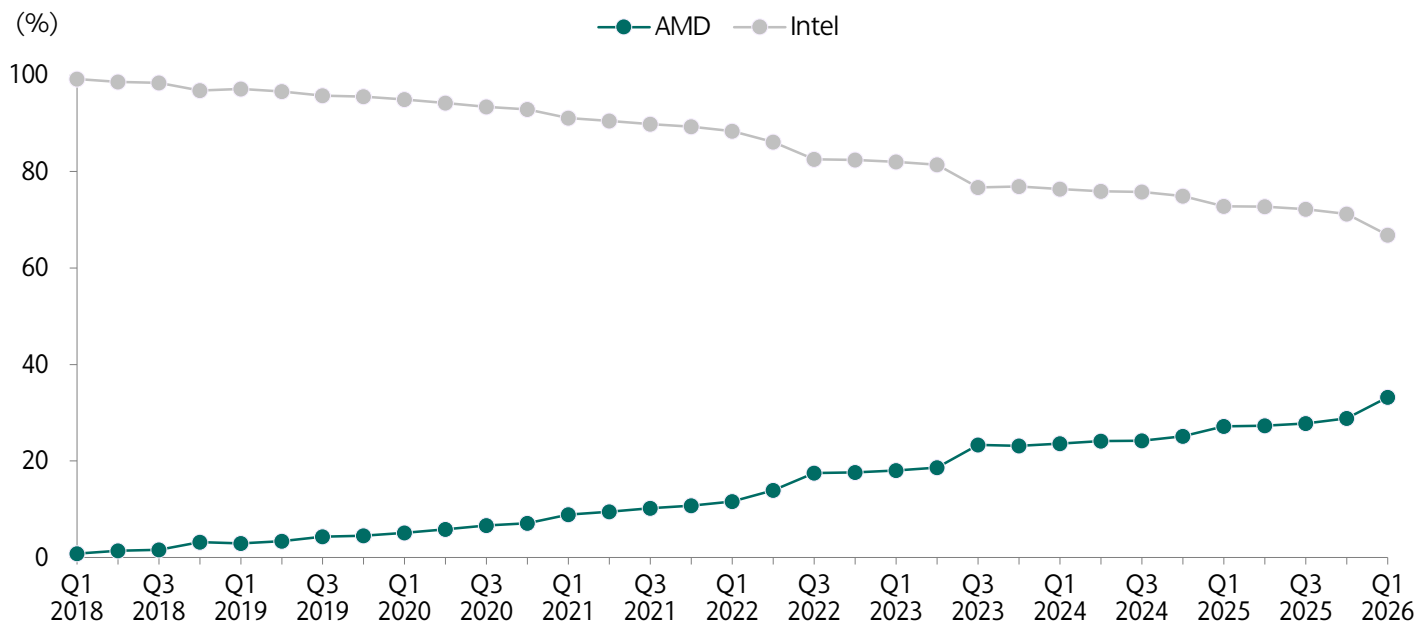
항목	현재 판단	판단 근거
메모리(HBM)	핵심 병목	• 고성능 AI GPU에 필수. 공급업체 제한, 고객 인증·수율·적층 난이도 높음
CoWoS/ 첨단 패키징	핵심 병목	• GPU 다이와 HBM을 결합하는 필수 공정. TSMC 의존도 높음
GPU/AI 가속기	핵심 병목	• AI CapEx의 중심. 완제품 서버 출하량 결정
네트워킹/광모듈	중기 병목	• GPU 클러스터 규모가 커질수록 800G/1.6T 연결 수요 증가
전력·냉각·랙 통합	중기~장기 병목	• 고밀도 AI 랙을 실제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
전력망/변압기/ 부지	장기 구조 병목	• 전력 인프라 리드타임이 반도체보다 길고 규제·계통 접속 이슈 有
서버용 CPU	타이트하지만 핵심 병목은 아님	• AI 서버에 필요하지만 공급원 다양. GPU/HBM 대비 대체 가능성 높음
일반 파운드리/ 일반 서버 부품	상대적으로 덜 타이트	• 품목별 타이트함은 가능하나 AI 서버 출하의 핵심 제약은 아님

자료: 하나증권

차별화: 서버 CPU 시장 지형 변화

- 인텔의 사실상 독점 시장이던 서버 CPU 시장을 AMD가 뺏고 있는 상황
- 인텔도 가속기가 있으나, 성능 측면에서 AMD의 제품을 고객들이 더 선호
- AMD의 차세대 제품은 MI450, Helios Rack-Scale, EPYC Venice를 결합한 플랫폼 전략: GPU 수요를 CPU로 연결 중

서버 CPU 시장 점유율 추이



자료: Murcury Research, 하나증권

차별화: AI가 가져올 기업의 진화

2024년 12월 31일 전 세계 시가총액 Top 5

순위	기업명	Ticker	시가총액 (달러)
1	애플	AAPL	3.8 T
2	엔비디아	NVDA	3.3T
3	마이크로소프트	MSFT	3.1T
4	알파벳	GOOGL	2.3T
5	아마존닷컴	AMZN	2.3T

2025년 12월 31일 전 세계 시가총액 Top 5: 블랙웰 본격 양산

순위	기업명	Ticker	시가총액 (달러)
1	엔비디아	NVDA	4.5T
2	애플	AAPL	4.0T
3	알파벳	GOOGL	3.8T
4	마이크로소프트	MSFT	3.6T
5	아마존닷컴	AMZN	2.5T

자료 : companiesmarketcap, 하나증권

- AI가 바꿀 기업의 가치: 플랫폼 기업들의 AI 인프라 설치 기반 전략 확장
-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시작으로(2025) 알파벳(2026)까지 AI 인프라 산업에서 설치기반 전략 시작
-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아마존도 자체 반도체 기반으로 AI 인프라 사업 확장 계획: MSFT 시가총액 추월 시나리오 부각

2026년 4월 30일 전 세계 시가총액 Top 5

순위	기업명	Ticker	시가총액 (달러)
1	엔비디아	NVDA	4.9T
2	알파벳	GOOGL	4.6T
3	애플	AAPL	4.0T
4	마이크로소프트	MSFT	3.0T
5	아마존닷컴	AMZN	2.9T

자료 : companiesmarketcap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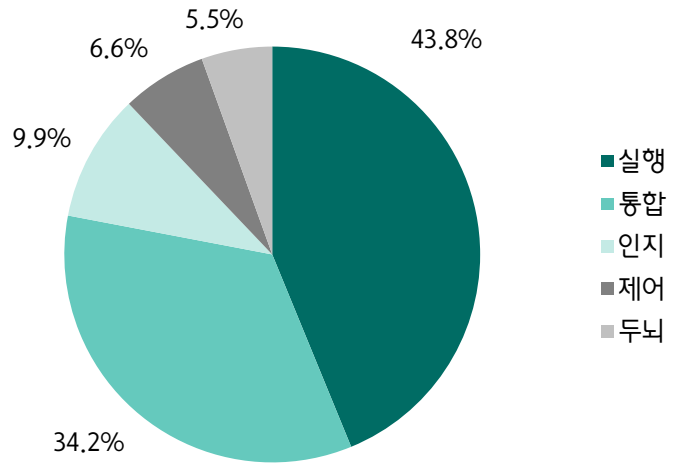
차별화: 피지컬 AI 초기엔 부품, 중장기적으론 AI 플랫폼이 수혜

- 피지컬 AI 초기 비용의 대부분은 로봇 본체, 말단 작업장치, 구동부, 기존 공장 통합 등에 먼저 배분될 여지 高
- 자동화 셀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물리적 실행 장치와 현장 통합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
- 중장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계층은 두뇌: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이며, 고객 고착화(Lock in)와 반복 매출의 핵심

S&P 500과 헬스케어 섹터의 이익수정비율 추이

자료: 하나증권

피지컬 AI의 초기 비용분석



자료: 하나증권

2026년 하반기 추천종목 및 투자포인트

2026년 하반기 추천 종목 및 투자포인트

	영역	기업명	Ticker	시가총액(십억 달러)	투자포인트
단기 병목	메모리	마이크론	MU	817.2	• 우호적인 업황 덕분에 유리한 가격정책 끌어가며 이익 개선 예상 • 2026년 말까지 고객들의 주문 예약 완료.
	GPU	엔비디아	NVDA	5,457	• 하반기 베라루빈의 본격 출하로 이익 개선 기대 • 추론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하퍼의 가격 상승 및 중국 수출 승인 긍정적
	스토리지	시게이트	STX	178.4	•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성장 수혜: HDD 수요 가속화 • 공급 부족으로 가격 결정력 강해지고 있는 상황
중기 병목	네트워킹	코히어런트	COHR	74.8	• InP 캐파 증설로 AI 기회 포착 가능성 확대: 연말까지 2배 확대 예정 • AI 데이터센터향 매출 가속: AI 향 광통신 및 데이터센터 매출 실적 반영
	리타이머	아스테라랩스	ALAB	39.9	• Scorpio의 채택 확대: 구조적 성장 기대 • AI 시스템 복잡해지면서 연결 관련 부품 수요 증가: 가격도 인상 중
시장지형변화 + 가속기	CPU	AMD	AMD	691.5	• AI용 가속기 덕분에 독점 시장이던 서버 CPU 시장 점유율 확대 중 • 하반기 메타 등의 고객을 확보한 신제품 모멘텀 기대
기업의 진화	플랫폼	아마존닷컴	AMZN	2,841	• AI 덕분에 AWS 성장 재가속: 장기 성장 가시성 향상 • 자체 칩을 활용한 설치기반 전략 구체화 기대
	HPC	갤럭시 디지털	GLXY	11.5	• 코어위브에 데이터센터 인도 시작: 가상화폐 사업자에서 HPC 사업으로 확장 • 2분기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 발생 가능성 高
피지컬 AI	정밀 모션, 센싱	노벤타	NOVT	5.4	•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, 리쇼어링 등 덕분에 제품 수요 확대 •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에 편입되며 기술력 입증
	힘 센서, 정밀 모션	리걸 렉스노드	RRX	13.1	• 데이터센터 ePOD 사업 순항 중: 모듈화 전력 시스템 공급 • 부품 판매 회사에서 통합 구동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
	머신비전	코그넥스	CGNX	10.7	• 비정형 작업 확산 수혜: 머신 비전의 중요성 커질 것 • 모듈형 자동화 셀 늘어나면 로봇과 함께 비전 시스템 채택 가능성 高
	베어링	팀켄	TKR	8.0	• 고정밀 베어링 수요 확대: 피지컬 AI가 다축, 고자유도로 확장되면 안정성 중요 • 휴머노이드 및 로봇 부품 납품 시작
소비	금융	비자	V	628.8	• 월드컵 및 소비 관련 행사 수혜: 국제 결제 늘어나면서 실적에 긍정적 • 결제망 지배력을 활용해 VAS 등 고성장 부가서비스 사업 성장

주: 종가 5/20 기준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